

공수처·사드...여야 '하한 정국' 뜨거운 대치

세법개정 등 곳곳이 지뢰밭 3野 공조에 與 "다수당 횡포" 10일 추경처리 무산 가능성

불 붙 더위가 계속되는 정치 하한기에도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로 충돌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물론 세월호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과잉 진압·어버이연합·서벌관회의 청문회, 세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3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공수처 신설을 위한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5·18 민주화운동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 처리 ▲내년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 상황 ▲백남기 청문회 실시 ▲서벌관 청문회 실시 ▲어버이연합 청문회 실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권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정작 해결해야 할 현안을 피해간다면 정부가 어떻게 정상 운영될 것인가"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추경과 관련한 서벌관 청문회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야권 3당이 누리 과정 예산문제와 서벌관 회의 청문회를 추가경정예산안



“첫 발언은 형님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첫 발언을 권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리와 사실상 연계하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오는 10일로 예정된 '원 포인트' 본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권 3당의 공조를 통해 완전히 소수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협치 정신을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리 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 상황을 추경 처리와 연계한 부분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은 법 위반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더민주의 법안세 및 소득세 세율을 인상

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제 악화를 이유로 반대 의사가 확고하다. 여기에 각종 청문회 등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이와 관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는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포함하기로 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법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나 두 야당이 이번 주 공동 발의할 예정인 공수처 신설 법안에 이런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권의 이번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두 야당은 마지막 쟁점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세부 문구 조정을 거친 뒤 이번 주 내에 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정현 “호남출신 당대표 자체가 역사이자 대변화”

정병국·주호영 “계파 해체”...이주영·한선교 “변화만이 살길”

새누리 전대 주자 전주합동연설회

새누리당은 3일 전북 전주를 찾아 두 번째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며 호남 당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3500여명의 당원이 모인 전주 화산체육관에 입장하자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 각 후보는 봉사·회합·소통이라는 글자가 쓰인 부채를 들고 당원 앞에 흔들어 보이며 화합을 강조했다. 섭식 32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내린 소나기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

유일한 호남 출신 당권주자인 이정현 후보는 “땀을 어디에 뿜었느냐가 인사의 기준이 된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겠느냐”면서 “이는 엄연한 인권유린이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서, 이제 호남을 포함한 대한민국은 국도 전체를 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파 갈등보다는 당원인사에 초점을 맞추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같은 비박계 주호영 의원도 “누가 진박이 미치는 후보고, 누가 비박이 미치는 후보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밝혀봐야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면서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는 계파 당 대표가 돼야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범진박계로 분류되는 이주영 후보는 “우리 당에 진짜 중요한 것은 혁신과 박근혜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이라며 “지금 계파 패권주의에 기대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진박이나 비박이나' 하면

서 집안 싸움할 때이나”고 비판했다. 이어 한선교 후보는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절망과도 같은 벌을 받았지만 그 이후 변하지 않았다”면서 “아무리 국민에게 지탄받고 아담맞아도 변하지 않는 새누리당을 확 뒤집어 보자”고 호소했다.

앞서 김희욱 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호남은 새누리당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가운데 호남에서 2석을 얻는 기적을 이뤘다”며 “이는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호남도 얼마든지 마음을 활짝 연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약무호남 시무새누리(若無湖南 是無새누리)”라고 외치며 “호남이 없으면 새누리가 없다는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자”며 각오를 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문재인-안철수 조우 불발

DJ 7주기 목포·신안 평화캠프 安 불참 결정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조우가 불발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앞두고 오는 6~7일 이틀 동안 목포와 신안 하의도 등에서 진행되는 '2016 김대중 평화캠프' 행사에 문재인 전 대표는 참석하는 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대선 경쟁 주자인 문재인·안철수 전 대표가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할 경우, 김대중 정신 승계의 주도권 확보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을 주목했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안 전 대표가 '호남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일정에 따라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에서 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6일 목포 행사에 참석한 뒤, 김대중 평화센터가 마련한 남도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도 답사는 화순 적벽과 담양 소쇄원,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가 이날 행사에 참석,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 국민의당에서는 DJ의 복심이자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비대위위원장과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DJ 계보로 평가 받는 설훈, 김한정 의원 등과 광주·전남 지역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더민주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 단독 입후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당암·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더민주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3일 더민주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도당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도당 위원장 선거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 의원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도당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으로 합의를 추대될 예정이다.

전남도당은 16일 오후 2시 화순 하니움스포츠펠에서 8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당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합의를 통해 박지원의 위원장 선출에 이어 더민주 당 대표 및 부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당위원장 후보 등록 첫날인 3일 등록한 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다. 후보 등록은 4일까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논란의 박대통령·TK 초선 회동

오늘 靑서 면담...비박계·야당 “전대 앞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과 면담하는 데 대해 3일 당 내외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 측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한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정치권 협조를 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비박계(비박근혜)계와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비박계 당 대표 경선 후보인 정병국 의원도 “전대가 끝난 뒤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이번 면담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성주 군민이고 야당 의원들”이라며 “더 시급한 것은 사드 배치 동의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